

사설

스님들의 괴문서

요즘 출처가 불분명한 괴문서가 종단 안팎에 많이 나돌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돈과 권력이 집중된 자리에 연관되어 괴문서는 등장하곤 했다. 총무원장 선거를 놓고 벌어졌던 지난해 종단사태 때부터 괴문서가 많아지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종단 안팎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보내지고 있어 날로 그 폐해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 괴문서에 이름이 한번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그 당사자가 받는 타격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바로 그런 점을 노리고 괴문서를 발송하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

비록 이해관계가 상충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사생활을 마구잡이로 파헤치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나쁜 짓인데 그것도 부족하여 남의 이름을 도용하여 유포시키는 행위는 인간적으로 치졸하다 못해 비열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인권의 사표임을 자부하고 있는 스님들이 벌이는 그러한 행위는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승가 전체나 불교계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마구잡이로 가발러 특정인을 망신주려는 어리석은 짓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민약 결정적 하자가 있어 종단의 위상에 손상을 입힐 여지가 있는 사람이 종단의 주요직을 맡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자기의 숨어 있는 채 남의 단점 이름을 도용하여 상대방의 인격에 흠집을 내려고 마구잡이로 까발리는 것은 내용의 사실여부를 떠나 옳은 방법이라 할 수 없다.

(수타니파타)에 육식이 비린 것이 아니라 친구를 배신하고 함담하는 것이 비린 것이라 했다. 보아하니 지금 괴문서를 마구 뿌려대고 있는 사람이

승가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이야말로 비린 자 가운데 비린 자라 하겠다. 백보를 양보하여 어쩔 수 없이 싸움을 하더라도 최소한 체면 자킬 것은 지키면서 싸우라는 것이다. 스님으로서 최소한의 체면마저 내던진 채 나전투구식으로 싸움을 벌이는 것은 결국 스님들 전체를 패자로 만들뿐 당사자 그 누구에게도 이득이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누구 말마따나 세속에서 누러보지 못한 명예와 부를 누러 보려고 안달이 나서 그러는지, 정말로 종단과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괴문서를 유포시키는 자들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만약 명예와 부를 위한 것이라면 판을 잘못 선택하였으니 환속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종단과 불교발전을 위한 충정이라면 그 방법이 크게 잘못되었으니 그 또한 당연히 참회해야 할 것이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불교를 망가뜨리려는 의도의 짓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니 그런 사마외도는 불교인의 이름으로 색출해 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천년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마다 밝은 불을 밝혀 버리기에 바쁘는데 유독 우리 불교계만은 구수에 발이 묶여 내일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승가와 불교계 전체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폭로성 위주의 괴문서를 유포시키는 행위는 자제하고 출가 본연의 정신을 회복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쏟아야 더 이상 불조에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추잡한 내용의 괴문서를 만들고 유포시킨 당사자뿐 아니라 불교계 전체가 이러한 일이 만연되고 있음을 자자·포살로써 진정으로 참회해야 한다. 그래야만 암세풍은 더이상 자라지 않을 것이다.

“교구본사별 복지법인 만들자”

조계종 복지재단, 11월 총회에 상정할 듯

불교복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구본사별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 전국적인 사업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본사별 복지법인설립안은 조계종 복지재단이 내년 설립 5주년을 앞두고 '이대로는 안된다'는 운영상의 위기감에 따른 새로운 방향 모색 차원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이같은 여론은 그동안 일선 복지관계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제기돼 온데다, 지난 16일 조계종 복지재단 주최 '불교복지포럼'에서도 핵심 과제로 거론됐다. 게다가 복지재단은 이번 논의의 결과를 오는 11월 정기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복지관계자 및 종단 실무자들은 권경임씨(복지재단 자문위원)가 '종단의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강화방안' 논문에서 제기한 교구본사별 복지법인설립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표명했다.

권씨가 제기한 방안은 현 복지법인을 불교사회복지원 형태로 전환하고 각 교구본사별로 복지법인을 설립해 단위사찰 사회복지사업과 연계하는 체계, 이같은 체계의 필요성은 현재의 복지법인체제로는 지방자치시대의 사회복지지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이 경우 교구본사의 지휘에 따라

각 말사들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구조와 시·군 단위의 지역별로 복지연합체를 구성하거나 복지관 및 아동시설 등 시설종별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획적구조를 가미한 체계를 구성할 수 있어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인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구본사별 복지법인 설립과 맞물려 현 복지재단의 불교사회복지원으로의 전환도 중요한 과

제로 지적됐다. 별도의 법인임에도 총무원 사회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총무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복지법인의 현 체계는 권한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따라서 비효율적인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복지재단 최후한 부장은 "지방자치시대에 맞물리는 불교복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구본사별 법인설립과 불교사회복지원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영우 기자 (mwhan@buddhania.com)

본원종 3대종정에 태허스님 재추대



본원종(총무원장 대화)은 13일 종로 연화정사에서 종정추대위원회를 열고 제3대 종정에 현 종정인 태허스님(경북 예천 연방사 주석)을 재추대했다. 태허스님은 1915년 문경생으로 28년 김용사에서 경원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본원종 초대 및 2대 종정을 지냈다.

조계종 포교사고시 11월 28일 실시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11월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국대 등에서 제5회 포교사고시를 실시한다. 종단등록 불교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조계종 재적사찰에 신도등록을 필한 자, 신도5계 및 보살계 수지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시험의 원서접수는 10월23일까지다. 구비서류는 응시원서, 조계종신도증 사본, 수계증 사본, 불교대학 졸업(예정) 증명서등. (02)720-7060 김재경 기자

태고종 선암사에 비구니 교육도량

태고종은 전국비구니회의의 숙원사업이었던 비구니교육도량을 선암사 운수암에 마련한다. 이에 따라 운수암은 스님들이 거거하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량정비공사에 들어갔다. 비구니회는 선암사 강원에 입학할 확인모집에 들어가 내년 학기부터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경숙 기자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16일 제2대 회장 취임식을 갖고 새롭게 출범했다.

중신회 백창기 회장 취임

청사건립기금 2억 보시

조계종 중앙신도회 백창기 제2대 회장 취임식이 1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거행됐다.

3년여의 파업을 불식하고 중앙신도회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한 이날 법회에는 총재인 총무원장 고산, 고문인 교육원장 일면, 포교원장 정련스님, 서둔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대의원·회원 5백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백창기 회장은 총무원 청사건립기금으로 2억원을 보시해 중앙신도회가 조계사 성역화 사업에 앞장설 것임을 다짐했다. 고문인 윤철상 삼명학원 이사장은 경기 강화군 내가면에 소재한 개인 사유지 1만평을 중앙신도회 연수원 건립 조건으로 기증해 회원들이 중앙신도회의 재정자립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재경 기자

btn 정상화 총무원 나선다

조계종 btn특위 해산...허사장 "사퇴의사"

조계종 btn특위는 12일 11차 회의를 열어 특위해체를 결의하고 이후 btn(사장 허문도) 정상화를 위해 총무원이 적극 나서 책임질 것을 제안기로 했다.

총무원은 최근 유력한 투자자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인사는 "투자자를 거의 섭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총무원장의 재가를 받아 새 영진을 영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허 사장은 12일 조계종 문화부장 일철스님을 만나 "경영정상화를 위해 조계종에서 적극 나서고 새 투자자를 추천한다면 사장직에서 물러날 뜻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일 기자

동국학원 이사후보

성관스님 등 4명 사퇴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오현)는 14일과 16일 동국학원 이사후보 사퇴(성관, 범종, 정후, 장운스님)에 따른 재선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성원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동국학원 이사후보로 선정됐던 정후스님과 장운스님이 13일 이사후보를 사퇴했다. 이에 앞서 성관, 범종스님이 이사후보를 사퇴해 12명의 이사후보 중 4명이 사퇴했다.

종립학교관리법에 따르면,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이사 등 임원후보를 선정해 중앙총회의 동의를 얻어 동국대에 복수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괴문서 유포 중단 촉구

조계종 총회위원장 "불신만 조장할뿐"

조계종 중앙총회 의장 범스님과 부의장 청화, 명진스님은 13일 교계기자 간담회를 갖고 괴문서 유포 중단을 촉구했다.

범스님은 "정화개혁회의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단의 중진스님들을 비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괴문서 유포의 중지를 촉구했다.

호법부장 종고스님은 임시총회 정책질의 답변을 통해 "괴문서 발생지가 통도사 패스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파악했다"며 "유포자에 대해서는 중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화회, 청림회, 실천회) 중앙총회의원 "조계종 위상 정립을 위한 원유회 일동" 명의로 교계 언론사 등에 우편과 팩시밀리를 통해 뿌려졌다. 괴문서에는 총회 의원 등 10여명을 비수행인으로 규정하고 공직사퇴를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발신처로 명기된 각 단체들은 "종단의 혼란을 노리는 세력들이 이름을 도용해 확인되지 않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퍼뜨리고 있다"며 "호법부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nia.com)

구산선문 참선 기행

10월 : 봉림산문(봉림사지)·성주사·장유암

10월에는 현운선사(787~868)에 의해 개창된 봉림산문의 중심도량으로 현재는 터만 남아 있는 봉림사지를 찾아갑니다. 봉림사지에서는 고려 왕실에 큰 영향을 미쳤고 한때 경남 지방의 선종을 진작시켰던 향훈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천년 고찰 성주사에서는 대웅전(지방문화재 제134호)과 3층석탑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가야시대의 장유화상이 토굴을 짓고 수도하며 불법을 수로국에 전한 호사가 됐다는 유서 깊은 장유암도 함께 합니다.

- 출발: 10월 9일(토) 밤11시·조계사 앞(무박2일)
- 회비: 4만5천원(조식 중식 포함)
-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정성호)
- 구산선문 관련자료 부디포아(www.buddhania.com)에서 보세요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일양약품·대한불교계과인회

현대불교신문사

737-8881

현대만평



강강수월래

공고

불교미술 보응문성 金魚 문도총회 소집

보응문성 스님은 근세의 대 불모로서 한국 불교미술에 괄목할만한 업적을 쌓으셨고 이 시대 불교미술의 큰 산이신 일섭 스님, 신상군 선생님 등의 스승으로서 불교 미술인들의 근간으로 자리잡고 계십니다. 그러나 스님의 행적이 지금까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따라서 늦게나마 스님의 후학들이 원력을 모아 보응문성 스님을 기리는 첫 번째 사업으로 스님의 행장을 담은 비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차에 걸쳐 비 건립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제 문도들이 다같이 한자리에 모여 미진한 문제 등을 의논하고자 다음과 같이 「보응문성 문도총회」를 개최하오니 우리나라 불교미술의 중흥을 위한 뜻깊은 일에 다같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 일시: 1999년 10월 7일(음 8월 28일) 하오 1시
- 장소: 한일관(지하철 종각역, 제일은행 옆) Tel. 02-732-3735
- 대상: 보응 스님의 4대(曾孫弟子)까지
- 문의처: 보응문성 금어 비 건립 추진위원회 사무실 T. 02-738-1117 FAX. 02-738-1118

보응문성 금어 비 건립 추진위원

- 석정 스님, 재섭 스님, 신언수, 박준주, 조정우(이상 문도)
- 황수영 박사(전 동국대학교 총장), 정영호 교수(교원 대학교)
- 범하 스님(통도사 성보박물관장), 장충식 교수(동국대학교 박물관장)
- 장곡 스님(갑사 주지스님), 양산 스님(조계종총무원 사회부장)

실행위원: 허길양, 전연호, 박동수, 송광무, 조기환

보응문성 금어 비 건립 추진위원장 황수영